

화순 의병 故 尹宗섭 志士 100년만에 전국훈장 애족장

손자 윤희선씨 “조부는 행동하는 우국지사”

“유학자이신 조부님은 일제의 강제 합방 만행을 참지 못하고 의병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고(故) 윤종섭(1878~1908년) 애국지사의 손자 윤희선(85)씨는 일제 강점기 화순을 중심으로 의병운동을 한 윤종섭 선생에 대해 “행동하는 우국지사였다”고 설명했다.

윤종섭 선생은 한일강제병합 5년 전인 1905년, 최익현 선생의 영향을 받아 고향인 화순군 이양면 일대에서 일제에 항거하는 의병활동을 시작했다.

윤종섭 선생은 양회일 의병장 등과 함께 의병 100여 명을 조직해 포를 쏘는 화포대장으로 맹활약했다.

이들 의병은 1907년 3월 봉기해 화

순 군아와 능주 군아, 순사 주재소 등 일본군 주재지를 공격하며 일본군과 곳곳에서 교전을 벌였다.

그러나 윤 선생과 양회일 의병장 등은 곧 일본군의 반격에 1차 체포를 당했고 같은 해 12월 고종황제의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났다.

이후 일본 측 감시가 심해지자 이들 의병은 지하활동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밀고자들에 의해 1908년 초 일본 헌병의 급습을 받아 다시 체포됐다.

당시 지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윤 선생은 1908년 7월 서른의 나이에 장흥의 감옥에서 고문 중에 허를 깨물어 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선생이 감옥에 갇힌 후 집안은



윤종섭 애국지사의 손자 윤희선씨

중비바산이 됐다.

당시 윤 선생의 집안은 논 70~80마지기(약 4만6000~5만3000㎡) 이상을 보유한 넉넉한 형편의 양반이었으나 윤 가족이 선생의 구명운동에 나서고 일본군의 감시 또한 심해지던

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윤희선씨는 “조부께서 작고한 후 할머니께서 장남인 아버지를 비롯한 2남 1녀를 데리고 행상으로 입에 풀칠을 하며 떠돌다가 결국 순천까지 내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독립운동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백안시하며 손가락질하는 이도 있었다”며 “더는 화순에서 살 수가 없어 할머니가 보따리를 싸다녀러”고 말했다. 이렇듯 윤 선생 일가는 감시의 눈을 피해 이름을 숨기고 숨죽여 살 수밖에 없었다.

윤희선씨는 가문이 몰락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지니 해방 후에도 할아버지 족적을 살필만한 후손이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윤 선생의 행적은 지난 2008년 뒤늦게 할아버지의 족적 찾기에 나선

손자의 노력으로 100여 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윤희선씨는 “처음에는 무작정 대학 도서관이나 화순에 찾아갔다”며 “집안에서 윤환원, 행원 등 여러 이름으로 불러 역사를 쓴 사람들이 다 다르게 기록하면서 조부의 행적을 찾기가 어려웠다. 다방면의 노력 끝에 찾았다”고 밝혔다.

윤종섭 선생은 15일 광복절 제67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로부터 애족장 포장을 받게 됐다.

윤희선씨는 “할머니와 아버지는 지난 속에서도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늘 그분의 감격함을 나에게 들려주셨다”며 “죽기 전에 할아버지의 귀한 뜻을 알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동구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자원봉사팀 합대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구재갑)는 여름방학을 맞아 최근 중·고생 30여 명이 참가하는 '2012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팀합대'를 운영했다.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 제공>

농협 전남본부·경희대, 나주시 무료 한방진료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와 경희대 의료봉사단은 최근 나주 봉황농협(조합장 박창기)에서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했다.

광주 서구, 저소득층 학생 화폐금융박물관 견학



광주시 서구(청장 김중식)는 최근 저소득계층 아동들과 1박2일 일정으로 청와대,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등을 견학했다.

동부경찰 등산로 범죄예방 홍보캠페인



광주동부경찰(서장 전준호)은 최근 무등산 중심사 입구와 등산로 일대에서 동구청새마을회 등과 함께 합동순찰 및 범죄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동부경찰서 제공>

건협, 목포경찰 방법순찰대원 금연클리닉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본부장 강선규)는 최근 목포경찰서 방법순찰대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금연강의, 스트레스검사, 체성분검사 등 금연클리닉을 실시했다. <건강관리협회 제공>

독립만세 외치다 옥고... 목포 정명여학교 애국지사 7인

해방 67년만에 활약 재조명...대통령 표창

일제강점기 국제회의에 조선 독립문제 상정을 촉구하고자 만세운동을 벌인 목포 정명여학교 학생들의 활약이 해방 67년을 맞아 재조명됐다.

1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6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정부 포상을 받는 애국지사 198명 가운데 여성은 7명이다.

여성 7명은 모두 전남 옛 목포 정명여학교(현 정명여중·고) 출신.

김나열, 곽희주, 김옥실, 박복술, 박용전, 이남순, 주유금씨 등 모두 고인이 된 이들은 1921년 11월 목포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돼 각각 징역 6~10개월을 선고받고 옥

고를 지냈다.

이들은 1차 세계대전 후 군비제한, 세계열강 간 동아시아 질서 재편 등이 논의된 워싱턴회의에 조선 독립문제 상정을 촉구하고자 태극기를 들고 교문을 뛰쳐나왔다.

특히 이들의 활약상은 당사자 측의 신청 없이 보훈처의 발굴로 빛을 보게 돼 의미를 더했다.

김나열 선생의 딸 장경희(74)씨는 “어머니는 생전에 유공자 신청 얘기만 나와도 ‘조선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극구 거절했다”며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가 애국지사로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애국지사를 다수 배출한 정명여

고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정명여학교는 호남 최초의 5년제 여성 중등교육기관으로 1903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됐다.

애초 명칭은 ‘목포여학교’였으나 1911년 ‘정명여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여학생들은 1919년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목포에서 4·8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정명여학교는 1937년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자진폐교했다가 해방 후인 1947년 재개교해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매년 4월 8일 무렵 직접 만든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벌이는 재현행사가 열린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lee@



K2 등정 김흥빈 대장

지난달 31일 세계 제2위의 거봉 히말라야 K2(8,611m) 정상에 오른 김흥빈 대장(48)의 모습. 김 대장이 12일 트위터에 올린 등정 사진이다. 한국도로공사산악팀의 김미곤(40)씨와 함께 K2 정상을 밟은 김 대장은 이번 등정으로 8,000m급 7개 봉 정상에 올라 8,000m 14차 완등 레이스의 반한점을 들었다. 김 대장 일행은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광주일보 8월1일자 2면 참조>

지인달 31일 세계 제2위의 거봉 히말라야 K2(8,611m) 정상에 오른 김흥빈 대장(48)의 모습. 김 대장이 12일 트위터에 올린 등정 사진이다. 한국도로공사산악팀의 김미곤(40)씨와 함께 K2 정상을 밟은 김 대장은 이번 등정으로 8,000m급 7개 봉 정상에 올라 8,000m 14차 완등 레이스의 반한점을 들었다. 김 대장 일행은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광주일보 8월1일자 2면 참조>

송해교, 中 쓰촨성 충칭 임시정부청사에 한국어 안내서

배우 송해교와 한국 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 쓰촨(四川)성 충칭(重慶) 임시정부청사에 한국어 안내서를 제공했다.

서경덕 교수는 13일 임시정부 27년 역사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펼쳐졌던 충칭 임시정부 청사에 새롭게 디자인한 한국어 안내서 1만부를 제공했다면서 이 안내서는 배우 송해교의 후원을 받아 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안내서에는 충칭 임시정부의 활동사항,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경로 등이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실려 있다”고 덧붙였다. 송해교는 “우리 국민이 더 많은 관심



배우 송해교

을 갖고 중국 내 역사 유적지를 많이 방문하는 것만이 타국에 있는 우리의 유적지를 지켜나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제작을 후원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사

◆KT ▲전남교과본부장 김진철 ▲호남네트웍스운용담당자 이철규



김구 선생 손자 김양前 보훈처장도 국가 훈장

김구 선생 손자 김양前 보훈처장도 국가 훈장

제6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13일 “김양(58·사진) 전 보훈처장이 최근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면서 “내포적인 독립운동가 집안의 3대가 각각 다른 업적으로 국가 훈장을 받는 흔치않은 기록을 남겼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의 할아버지 김구 선생은

항일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등의 공로로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아버지 김신 장군은 1949년 군번 10번을 부여받고 공군 장군에 참여했다. 1960년 최초의 F-51 무스탕 조종사가 되어 F-51 10대를 인수하는데 참여했으며, 6·25전쟁 3년간 전투 조종사로 참전했다. 제6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그에겐 1953년 금성유지무공훈장,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등이 수여됐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보훈처장으로 있으면서 6·25전쟁

60주년 기념행사와 안중근의사 의거 및 순국 100주년 행사, 4·19혁명 50주년 행사, 5·18민주화운동 30주년 행사 등을 성공리에 치른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특히 보훈처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0년,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아키히토(明二) 일왕의 방한이 추진됐을 때 이를 저지한 일화로 유명하다.

김 전 처장의 아들(김용만)은 공군 중위로 전역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군장교로 복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이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김세주·김성기씨 장남 성명군 최근학·오정열씨 차녀 은경양=19일(일) 오전 11시 50분 상무리초 컨벤션웨딩홀 1층 아이비홀.

종친회

▲달성판서공파조 추모제(회장 배신수)=9월 4일(화) 오전 11시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수동중학교 (참석대상은 함양군민 및 배씨후손)

알림

▲공민중개사 새단체 발기인 대회 안내(가칭 코리아 공민중개사 협회)=22일(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 010-

3002-0099(이종현), 062-371-0001.

▲습관성도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 오락 등)자 및 가족 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프르네 학습증진컨설팅 저소득층 자녀 무료상담=학교부적응, 성적부진, 성적저하, 교육관계, 정서장애, 게임중독. 010-6392-7137.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자, 기초생활 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

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 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등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한다. (광주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솔 및 복지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모집

▲배호 가족모임 광주지부(지부장 정중원)=불새출의 가수 배호가 죽 남여 회원 수시모집 010-7520-1112.

▲아름다운 가족부르기 회원모집=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가족교실(이태리, 독일, 한국가곡) 2012년 2학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062-520-4243.

▲한국노후생애대안학교 5기 학생=교육과정은 노후생애설계 생활영어·한시·웃음치료·노인상담 심리학, 접수기간은 14일(화) 오후 5시 까지(토·일·공휴일 쉰) 전화통화 후 본인지참(입학금10만원), 합격자 발표는 24일(금) 개별통지 한국노후생애대안학교(광주 동구 대의동13-2 동부경찰서 옆 무등공중사무소 5층) 062-223-1357, 010-

2646-5023.

▲놀이매 '신명' 단원=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 신청자=중증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광주 아버지합창단원=광주 거주 합창 좋아하시는 남성,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연습 011-602-7354.

▲우리문화연구회 소리노리 풍물놀이 및 장구기초, 민요, 한춤 회원=매주 월·수·금 오전 10시~11시, 화·금 오후 7시~8시 30분.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주체육관 11호 장구교실 062-371-4242.

▲사랑모아 가족복지회 회원=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테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아카데미 자원봉사협의회 지원봉사자=월 3~4회 노인 돌봄비·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

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부동산 경·공매 동호회원(무료)=기초부터 현장 답사, 물권·채권 권리분석, 부동산 미래가치 및 현금성 분석 등. 011-607-4614.

▲청수 조기 촉구회 회원=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부음

▲김애순씨 별세 황재순(쑤룬건

설 대표이사)·세원(H.H 레저회장)

씨 모친상 차성만(담양·함평 다이너스티 대표이사)·해재호(대주그룹 회장·광주일보 회장)씨 방모상=발인 15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20-3352.

▲한재희씨 별세 기문·기경씨 부친상=발인 14일(화)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이창현씨 별세 승기·승복·승열·승연씨 부친상=발인 14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p>故 정순호(남/73세)</p> <p>子/子婦: 정현수/김미옥, 정수/조현미, 명호/미진</p> <p>●호실: 401호 ●발인: 8월 15일</p> <p>●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3</p>	<p>故 이경희(여/76세)</p> <p>子/子婦: 박수철/이혜숙, 박수진/강태선, 수원/수미/최경철</p> <p>●호실: 402호 ●발인: 8월 14일</p> <p>●장지: 나주다시 ●연락처: 227-4314</p>
<p>故 민이순(여/70세)</p> <p>子/子婦: 조기환/황은아, 조희숙/희영</p> <p>●호실: 101호 ●발인: 8월 15일</p> <p>●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p>	<p>故 유인창(남/58세)</p> <p>未亡人: 최기향 子: 유창호, 창민</p> <p>●호실: 102호 ●발인: 8월 14일</p> <p>●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p>

마음까지 편한한 **학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